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정례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7일 (수) 10시 3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상정된 안건

- | | |
|--|----|
| 1.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2) ... | 1면 |
| 2.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의 건 | 7면 |
| 3.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1) ... | 8면 |
| 4.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0) | 8면 |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합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입니다.

1.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2)

(10시 11분)

○위원장 김선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현 연합처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시작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역투어패스 결합 상품 기획 및 운영, 모바일 티켓 운영, 제휴사 계약·관리, 홍보·마케팅, 사업 정산 및 보고 등의 광역투어패스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2년간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권의 관광 연계 강화 및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충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하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5일 충청광역연합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권 광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업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해 운영 성과 평가에서 목표 대비 84%의 판매 실적을 보였고, 시장성을 확인하여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예산 집행률,

성과 평가의 신뢰성,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방식, 가맹점 지역 불균형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에 통상적인 운영 수익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 설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향후 재위탁 시 관리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에 대한 명확한 요구 조건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엄격한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이하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성과 평가는 아예 안한 건지,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올해 운영했던 업체에 대한 민간 위탁성 성과 평가는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연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도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 성과 평가에 대한 성과 지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전체적으로 공통 지표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별점 평가 등을 반영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잡아서 평가했고요, 개별 지표는 가맹점 모집에 대한 부분, 또 지역별로 어떻게 균등 모집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개별 지표를 평가해서 전체 총평점이 75.6점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저희는 의미 있는 평가 점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미 위원** 혹시 저희들에게 지표 기준표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별도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러면 저희가 성과 평가 결과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1년을 일단 진행했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7월 30일에 오픈을 해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인호 위원** 활성화가 잘 된 거 같아요, 혹시?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좀 시작을 늦게 했는데, 처음에는 가맹점도 적고 참여 인원도 적었는데, 그동안 저희 실무자들이 프로모션도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해서 현재로서는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인호 위원** 84%, 3351개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일단 목표의 적정성 여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달성을 했다, 그래서 달성률이 84%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결국 이게 활성화되려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실적 관리를 티켓 판매하고 가맹점 수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현재로서는 가맹점 수와 참여하는 인원과 만족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까지.

○ **유인호 위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현장에서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사실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위탁을 줬고, 수탁을 하고 있는, 위탁을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얘기냐, 적정한 금액으로 위탁을 주는지, 적정한 범위 내의 사업을 저희가 정해서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 줬는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재위탁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위탁을 주더라도 목표 설정 자체도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실시해 왔던 기준점에 대한 분석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감을 해야지 운영하는 수탁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이 내용 중에 가맹점 지역이 불균형했다라는 성과 평가를 나름 평가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대전하고 세종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충남하고 충북에 비해 가맹점 수가 줄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목표 달성하는 측면들이 좀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필요하겠단.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세종은 관광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두 번째는 도시가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가맹점이 커버할 수 있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넓은 관광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1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는 그냥 줄 게 아니고, 위탁을 주면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가지고 적정한 금액 산출부터 해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올해 시작할 때 저희 연합 자체가 처음 시작을 하고 광역투어패스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구성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충청권 전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 어느 지역을 빼고 갈 수 없으니까 같이 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전이나 세종 지역하고 충남·충북 지역하고 여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가 투어패스를 할 때 단순히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카페를 이번에 그래서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확대가 좀 어렵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내년도에 시작할 때는 좀 더 섬세하게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서비스 수혜 대상이 국내 관광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51명 중에 국내·국외 구분이 돼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거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쿠팡 같은 데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디테일하게는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거는 만약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할 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 자료를 넣으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타깃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중점을 뒀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살펴봐 주세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기초 자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예,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충북 충주에서 온 조성태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시고 처음 사업하시는 거라 말씀하신 대로 고생 많으신데, 처장님 말씀보다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진에서 답변 주셔도 되는데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나 김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점적인 사항은 다 얘기하셨고, 저 또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아닌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전이나 세종 같은 데도 카페가 하나도 투어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개수를 채우는데 있어서 양적으로 ‘목표 30곳 대비 130% 달성’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급한 시간에 급급하게 한 게 아닌가.

충북 같은 경우도 —제가 충북에서 왔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단양 한 군데에 편중된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초광역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날이면 날마다 있는, 다른 데에 있는 사업도, 기본적으로 랜드마크라고 해서 그런 사업은 중점으로 가되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각 지역에서 밀고 있는 웰니스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나머지, 목표 대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처장님이 답변 많이 하셔서.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러면 실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조성태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가 의회 개회 전에 제출된 자료라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3822매를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는 95.5% 정도가 되겠고요, 지역별로 조금……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맹점 모집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는 가맹점 수는 달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 편중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반영토록 해서 좀 더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전·세종이나 충북·충남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각 지역에 가서 한 번씩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보면 너무 편중돼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날이면 날마다 있는 장소들이 대다수

라서 여기 계신 초광역위원님들, 저희 사명감 갖고 오기는 하지만, 각 지역에 가서 잘한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같이 각 지역을 둘러보면서 현황도 받을 수 있었고, 저희가 어차피 발굴하려는 부분이잖아요.

검색해서 다 있는 부분 그대로 가려고 하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부분이 제일 아쉬워서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실적 관리 하시기 전에 내년 초반이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부당하게 안 한다는 부분보다는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길라잡이가 돼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받아 주시나요?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내년 추진할 때는 꼭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고민토록 하겠고요, 다만 금년에 조금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 사업 예산이 1회 추경, 2월 말쯤에 확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그리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 재공고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7월 말쯤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어패스 운영하기에 좀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되고요, 내년에는 최대한 연초에 사업 계획 착실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고 7월에 성립이 됐으면 사업하는 기간이, 절대 공기가 두세 달밖에 안 되고, 또 평가까지 해야 되고 결산까지 보셔야 되니까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앞으로는 여기 초광역의회에 오시는 의원님들 길라잡이로 해서 하면…… 어쨌든 그것도 홍보입니다.

저희 광역의회 홍보도 할 겸 검사겸사하시면서 각 지역 교류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의 건

(10시 30분)

○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께서는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충청광역연합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따라 금고 상반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상 계좌는 하나은행이며, 현재 일반회계를 운용하고 있어 단일 금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연합 금고 잔액은 37억이며, 이자수입은 2623만 원입니다. 주요 경영 지표는 우수 또는 양호이며, 재무 건전성 결과 모두 적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보유 현황 및 정보 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보안 컨설팅 현황 등 전산 시스템 관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보고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연합장 제의)(의안번호 101)

4.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연합장 제의)(의안번호 100)

(10시 32분)

○ **위원장 김선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현 연합사무처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충청광역연합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모두 기정

예산 34억 9661만 9000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 31쪽, 초광역자치과는 연내 준공 기한 미도래로 3개 사업 예산안 5억 원 중 3억 8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31쪽, 초광역산업문화과는 충청권 광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6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억 2510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대비 2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초광역 자치과 세출예산입니다.

초광역자치과 세출예산은 21억 7246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32억 4879만 원 대비 10억 763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9100만 원, 지방시대엑스포 전시관 설치 6500만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9억 4463만 원, 언론 홍보 및 콘텐츠 발굴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 세출예산은 19억 4083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13억 6083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 6700만 원, 전략 산업 연계 협력사업 기획 지원 6억 8200만 원, 충청미래경제 포럼 운영 5200만 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해외 박람회 6억 원, 충청권 생활문화축제 1억 9700만 원, 충청권 광역 관광 지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저희 충청광역연합이 내년에도 충청권의 협력과 상생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제1차 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하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0호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2월 5일 충청광역연합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쪽, 연합 총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4억 9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이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충청권 확대 방안 연구용역 등 총 5건 4억 800만 원으로 초광역자치과 4건에 이월액 3억 800만 원, 초광역산업문화과 1건에 1억 원입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3회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모두 증감이 없는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 관리를 위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5건 모두 준공 기한 미도래 및 기한 부족에 따른 것으로 용역 완료 후 실행 전략 마련과 정책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충청권 광역 및 지역화폐 발행 시행 방안 수립, 초광역권(광역교통망 등) 계획 수립, 광역 관광상품 개발 시행 방안 수립, 3건의 용역의 경우 연초부터 연말까지 충분한 사업 추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착수일이 하반기인 사업이 2건이나 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과제 미확정 상태에서 풀예산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은 연구의 타당성 부족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 BRT 표준 가이드라인 작성 정책 연구, 초광역권(광역교통망 등) 계획 수립, 권역관광상품 개발 시행 방안 수립 등은 대부분 후속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추후 연구 결과에 따른 실행 계획 및 추진 방안 구체화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당해 연구용역 중심의 예산 규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후속 실행 전략 점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은 2025년 11월 11일 충청광역연합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쪽 연합 총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6년도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1억 13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7%인 4억 963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억 2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5%인 251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충청광역연합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전액에 해당합니다.

4쪽, 부서별로 보면 초광역자치과 세입예산안은 56억 2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10만 원과 하나은행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500만 원 증액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 13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7%인 4억 963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충청광역연합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 56억 2510만 원의 73.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5~8쪽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쪽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 등 4개 시도 분담금 규모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하고, 성과 창출 과제 사업 및 신규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배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충청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차 사업 혁신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은 초광역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로 충청광역연합의 상생발전 도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내부유보금 대폭 감액과 운영경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과 실행 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며, 내부유보금 축소로 인한 재정 운용 탄력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7~16쪽의 지방시대엑스포 참가 등 4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이하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 **김현미 위원** 이 안에 보니까 21페이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 현황 그리고 위원회 명단, 심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 **김현미 위원** 6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64페이지 같은 경우에 연합 정책 개발 및 현황 대응을 위한 풀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구용역비 풀용역비는 저희가 현안이 있거나 연합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풀용역,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사업 중에서 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사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풀로 되어 있을 때는 사전 심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합이 출범을 하면서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대도시권,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됐던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우고 부득이 불가피한 부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호 위원** 8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정업무경비예요. 파견 나온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지원이 전혀 없어서 별도 편성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어서는, 궁금한 건 4개 시도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협의는 해 보셨는지.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말씀하신 특정업무경비 중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 5만 원씩 받는 것을 올해는 원소속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원소속에서는 파견 직원이기 때문에 원래 지급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은 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 시도 협의를 통해서 받았고요, 다만 내년에는 저희 연합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원소속에서 받고, 내년에는 저희가, 연합이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예산 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의 부서장과 예산담당자들은 13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사실 예산 담당 부서들이 받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했고, 내년도의 저희 경비,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받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4개 시도에서 받을 수 있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대민활동비는 4개 시도 협의를 통해서 원소속에서 받을 수

있는데, 예산 활동비는 저희 연합의 예산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초에 4개 시도가 협의를 할 때 시도마다 판단의 기준이 약간씩 좀…… 인사 부서가 달라서 조회를 할 때, 우선은 첫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하겠다. 어차피 분담금으로 받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거나 연합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각 시도의 의견은 선을 긋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연합 입장에서도 저희 직원들이니까 저희 연합 예산으로 세워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한적이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타 기관에 파견 나가는 기준하고 상이하게 적영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4개 시도 분담금과 '26년도 4개 시도 분담금이 사실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물가상승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예산도 증액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대민활동비 부분도 우리 연합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4개 시도가 나눠서 계속 부담을 해 가는 게 일견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경비성 경비들을 처음부터 떠안고 가기 시작하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지 못해져요.

그래서 이수현 처장님은 가시지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시고 새로 연합장도 선출을 했으니 이제 사무처장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합장 선출된 시도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문제는 올해처럼 계속 동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 관리, 9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91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유인호 위원** 감액 사유가 가장 큰 게 뭘까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우선 '25년도 예산은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면서 추정치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 실제 집행액이 이 정도, 감액된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관리비나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25년 세운 것보다는 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덜 한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과다하게 편성됐었다, 그리고 집행을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 나가야 될 비용들이니까 혹여나 부족함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액 차이가 커서 여쭙봤던 부분인 거고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 그리고 죄송한데 운영비는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운영

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서 운영·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25년 대비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이거 저희가 70여 개 매체 대상으로 홍보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70개 고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활용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하다 보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올해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예전에 추진단일 때도 언론사라든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 시도 공평하게 할 수 있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저희가 본회의를 진행하거나 상임위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26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4개 시도의 언론사들이 취재를 한다거나 와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홍보비 집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인지를 좀 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개 시도에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해서 지면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까지 다양한 광고 매체들이 있는데, 광고비 지출을 할 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언론사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를 균등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형평성 자체를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거는 자료 한 번만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주시고, '25년도 집행 내역, 언론사 집행 내역도 한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 충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언론사가…… 저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세종시·대전시에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이저라고 하는 데도 각자 많고 한데,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언론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합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 달라고 저희가 다녀도 연합이 아직 4개 시도보다는 밀리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관심을 보여주는데 평이한 일반적인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큰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언론사랑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각 시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방지라든지 중앙지 간사들과 만나거나 언론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게 있지만, 언론사에서 우호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나름 저희가 기준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자료랑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제처럼 특별한 이벤트를 말씀 주셨지만, 특별한 이벤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당신들께서.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어제든 건의안이나 의원님들 5분 발언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이외에는 직접 취재에 의한 노출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신 것처럼 메이저 언론사가 되게 많아요, 특정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처음부터 홍보비나 매체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하고 있는 기준들이 어떤 기준인지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기준에 부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질문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러다 보면 홍보비용이 전년 대비 —올해는 동일한데—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걱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줄어들고 과다 산출 했던 부분들 중에 남는 사업비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예산들도.

물론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하는 거지만, 신규 사업 또한 저희가 과다하게 산출한 측면도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111페이지 미래차 산업 혁신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는 일전에 간담회 통해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대비해서 항상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직접 사업이 없는 위탁수수료가 매번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TP가 됐든 특정 산하기관이 받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충남이나 충북, 세종이나 대전이 받게 되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주면서 굳이 사업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기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일전에 한번 간담회 통해서 내용은 들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조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인데 제가 다른 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 미래차 산업 전환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한 거는 일단 연합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대행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은 이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고 할 때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경 이런 걸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어쨌든 저희 구조 특성상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한계도 분명히 있거니와 4개 시도를 다 아우르는 사업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직전 간담회 때 제안드렸던 건 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어렵다 보니 밸류체인이라서 느낌은 그거잖아요. 4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맺고 그룹에 대해서 시제품이나 나머지 제작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직전에 상반기 연합 금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금고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전에 크게 질의 사항은 없어서 넘겼는데, 연합의 금고가 정해진 만큼 ESG 관련 된 전반적인…… 저희가 적은 금액을 맡기기는 하지만, 그 금액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은행이랑 하다 보면 금리 지원 이런 부분은 잘 쫓아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R&D나 시제품 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3200 정도를 5개 그룹에 쪼개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회사들이 아무리 작다 그래도 받을 만한 사업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저희가 초광역의회를 쫓아올 만한 매리트가 없다는 거지요.

광역 투어도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매력이 없는데 사업을 계속 하라는 것도 담당

주무관님들이 힘드실 거고, 조금 더 매력 있으면, 이자 지원 사업 —보전— 같은 경우 굉장히 일찍 조기에 마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두텁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매번 위탁 대행 수수료 때문에 10%를 —사업에 써 보지도 못하고— 주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를 반드시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너무 빠른 사업이라서 R&D 기획 컨설팅이나 시제품 개발비, 아니면 한쪽을, 항목을, 어차피 예산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밀어서 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아래 들어 있는 특허 지원 사업, IP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특허청에서 하는 중복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항목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조금 합리적으로 미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 갔다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각 시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복된 것을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수행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 보전에 대해서는 각 시도, 각 시군, 중기부 이런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 연합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 연합만의 특성이 약간 약할 거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특허 지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부로 연결한다든지 빼면서 저희 나름의 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연합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리는데요, 기획 컨설팅이나 시제품 개발비는 기존에 TP에서도 다 하고 있는 역할이고, 창진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과학기술혁신원에서도 하고 있는 중복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4개 시도에서 컨소시엄을 묶어왔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잖아요. 그리고 직접 사업이 1개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서 저희가 초광역의회에서 직접 사업을 핸들링하려면 행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이차 보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자고 한다는, 같이 교류하자는 거잖아요.

충남이나 충북 같은 데 제조업이 강한 쪽에서 이런 나머지 지역에서 같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이나 아니면 업체들이랑 컨소시엄을 묶어왔을 때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유니크하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묶어왔을 때 충북 업체 한 군데, 충남 한 군데, 세종 각각 한 군데를 묶어오는 능력에 대해서 각자 교류를 하면서 컨소시엄이 5개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니크하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못 하면서 보통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제품 개발이나 특허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하던 것을 여기에 엮을 수 있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각자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미 받았던 것을 중복 수혜 받을 염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한쪽으로 쫓아왔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초광역이라고 그러면 다르기보다는 좀 더 두텁게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 교류를 저희가 이끌어내려는 부분이잖아요, 충남·충북이나.

대전이나 세종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제조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나 정무적 감각이 있으신 업체들, 또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강한 업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에 있는 도시들과 나머지 도시들이 융합할 때 저희가 베니핏을 준다는 거니까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너무 적는데 구색은 다 갖추다 보니 좀 아쉬워서, 저희가 예산을 깎겠다, 이게 문제다, 제기하는 것보다는 —잘 하셨지만— 한쪽으로 좀 몰아서 저희보고 쫓아왔을 때 초광역의회에서 타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5개 그룹도 좀 많은 거 같고, 컨소시엄이다 보니까 업체 혜택 범위는 4개 시군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공평하니까, 너무 여러 개 그룹이니까 안의 숫자를 조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와서 크게 뭔가 뒤집거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획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와서 뒤집거나 이런 것보다는 숫자를 조정해서 5개 그룹인데 3개 그룹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준다거나, 5개 회사에서 와서 3200만 원 받아가면 —사업 시행이 1년인데— 왔다 갔다 4~5번씩 하고 업무 미팅 갖다 보면 제작하겠어요, 솔직히?

전장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이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3200만 원을 5개 업체가 쪼개서 가져도 미팅 비용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4개를 컨소로 묶을 만한 업체에 대한 교류가 있다 보니 서로 좋을 건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성과 지표 때문에 5개까지 묶지 마시고 3개를 묶든 4개를 묶든 조금 적게 해서 두텁게 하자는 부분인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업체가 모여서 한다기

보다는 2~3개 업체로 해서 4개 그룹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5개 그룹이 고정이라기보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적은 그룹에 많이 주느냐, 많은 부분을 적게 주느냐 그 차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 미래차 산업 혁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광역의회에서 하는 만큼 타이틀, 아니면 작업장 내에서 인증 같은 제도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쫓아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가족친화기업이나 가점, 조달 이런 상황에서도 가점을 주려면…… 기업체가 저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 검토하셔서 지원 가능하거나 조달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 입찰할 때 이렇게 잘 쫓아오는 업체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금전적으로 주기 어렵다 그러면 4개 시도에 있어서 처음 하는 만큼 저희가 강력한 힘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어떨까 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돈 안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가족친화기업 보시면 비슷한 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충청 미래경제포럼이라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다른 사업들보다는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해서 진행을 했던 거 같아요. 당초에는 1억 2000이 편성됐다가 6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5200으로 진행을 1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26년도에 5200, '27년도도 5200, 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에 5000 정도 되는 예산으로 1회를 했는데, 그 이후 '26년에는 2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회를 했을 때 5000 정도가 들었는데 2회를 했을 때 같은 비용인 5000 정도에 2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산출을 잘 해 보셨어요? 2회 해도 괜찮나요?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지난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서 금년에 저희가 유사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했더니 좀 과다한 거 같아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위주로 해서 금년에 4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4500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2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가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구체적인 근거 이런 부

분까지는 제가 설명이 어렵지만, 이 예산으로 내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분들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 한번 개최할 때 4500만 원 정도로 개최를 했는데, '26년도 예산이 5200이길래 어떻게 2회에 5200을 산정하셨는지,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양질의 행사가 —포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잘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2회로 가능하신 거지요, 어차피 이것도?

○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예,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 고민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선광**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결국 예산 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예산의 불용 상황들도 안 만들고 내실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아까 처장님도 그러셨고.

제가 우려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이 참 많아요. 신규 사업이 참 많고 예산도 막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의 수립 구성원들과 또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달라지면 이 신규 예산 편성한 것조차도 분절적 사업의 형태로 계속 끌고 가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26년 말에는 오히려 또 불용된 사업들이, 생각보다 예산이 절감되어진 사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수립한 사람이 사업의 실행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애초 기획 단계에 담았던 계획들이 다 정리가 되어질 거 같은데,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계속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효능감들이 생길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장님?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25년 시작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이라서 우려해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추진단일 때 예산을 편성해 봤는데, 그 자료·서류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과는 좀 달라진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올해는 첫째,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했던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편람도 정리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올 때

페이퍼를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쟁점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담아서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책자로 유인물을 해서 정확하게 넘겨서 업무에 공백이, 인수인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저희가 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있는 집행부가 의견이 달라서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신 예산을 만약 바꾸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할 때 공감을 해서 의회를 거쳐서 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인수인계하고, 후임자들에게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도까지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저희가 복귀할 예정이니까 걱정은 좀 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걱정이 돼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실 저희도 추진단한테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래경제 포럼을 1억 받았는데 사실 행사경비는 1억이든 10억이든 세워놓으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내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줄여서 집행을 한 거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돈이 안 들어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미래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이 걱정을 해주셨던 부부이지만— 충청권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저희가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우려하시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고, 신규 사업을 어떤 의도로 편성했고 어떤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사업의 효능감들도 결국 높아질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처장님이 여태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마무리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광**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태 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비슷한 걱정인데, 117페이지 기업 맞춤형 첨단 바이오 인재 양성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타이틀이 기업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 맞추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보통 기업 맞춤형이라고 하면 발주 기업이 있거든요. 아니면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바이오 회사 이런 데서 본인들 회사에 가장 잘 맞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오면 본인들이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발주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기업명이나 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맞추셨는지…….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이 기업은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저희 충청에 있는 바이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뒤의 사업 개요 쪽 따라가서 산출 근거랑 편성 사유까지 해서 다 일목요연하게 잘 봤는데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 중기부에서 나왔던 신중년 사업이랑 기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섞어놨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맞추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지가 약한 거 같아서……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어서 바이오협회나 이 정도 교육이 되어 있으면 XR이나 AI에 대해서 러닝시키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잘 오퍼레이팅시키는 인력을 하겠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고 사업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격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질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연령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경력 보유 여성까지 다양하게 폭넓은 건 맞습니다.

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충청권에 있는, 천안 지역에 있는 종근당이라든지 충북 지역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들과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연구하는 박사·석사 그런 분들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각 시도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 오송에 케이바이오헬스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충남은 폴리텍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된 현장 인력들, 세포를 배양한다거나 여러 가지 현장에 몰리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연합에서 충청권에 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또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충청에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보통 이런 사업 할 때 기업 맞춤형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종근

당이 됐건 셀트리온이 됐건 삼성바이오헬스가 됐건 업체들이 타이틀을 여러 개로 놓고 저희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기업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 예산, 퍼포먼스 나게 예산도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는 태도로 해서,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업 맞춤형이라는 타이틀을 썼으면 기업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거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소정의 과정을 다 마스터한 경우에 대해서 취업이 돼서, 그러니까 충청광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에 계속 빠져 있는 부분 같아요.

충청광역이 여러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똑같이 카피해서 하면 예산……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방만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신중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퇴직자, 딱 어떤 케이스를 정하면 되는데 고등학생 졸업자부터 100명을 이거로 나눠서 560만 중에서 혜택 범위도 거의 적고 산발적이고 너무 많아서 사업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부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차라리 기업 맞춤형이라고 하면 초광역의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업 맞춤형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들어간다는 목적지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일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업에서 OJT 받아야 될 부분을 미리 저희가 교육시켜서 보내면 기업도 금방 쓸 수 있잖아요.

인력을 저희가 어느 정도 양성해서 보낸다는 의미인데,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예산은 존재하는데 기업에 보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금 들여서 기업을 도와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는 직장이라고 배웠는데요, 직장 어디를 들어갈지 알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첨언을 하셔서, 안에 내용을 넣으셔서 기업체들이랑 협약을 해서 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책임진다는 광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낫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초광역에서 힘들었을 때는 충남에 살면 서로 각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이쪽 지역에서 제일 잘나가는 업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 있어서 이런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시켰을 때는 저희가 취업까지도, 요즘 ‘취업 부시기’ 많잖아요.

그래서 100%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끌어내고, 저희가 세금으로 100% 하고 있는 사업인데 100% 세금으로 교육시켜서 기업 좋은 일만 시킨다는 시각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가신다고 너무 사업을 안일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어떻게, 부탁 들어주실 건가요,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간다고 제가 내려놓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저희가 이거 계획할 때는 기업체라든지 수요를 좀 더 섬세하게 찾아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대략 범위는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단순히 교육받은 교육생 수료가 저희 목적이 아니고 수료를 함으로써 직접 취업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최선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하는데 기업 맞춤형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최소한 등장을 해서 여기 와서는 교육받는 분들이 배양이나 일반 교육이나,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도 전체 첨단 사업에 대해서 각 지역끼리 현안 사업 투어 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도 그저께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와서 첨단바이오에 대해서 인재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이랑 너무 유사해서, 초광역 우리 충청광역연합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쪽 업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충청광역연합에서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받은 인원인 만큼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폴리텍대학교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중복돼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되면 10% 저희가 줘야 되잖아요, 간접비 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처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도 잘 자리 잡고 가시는 걸로 알고, 이상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하고요, 다만 오송 케이바이오에서도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청연합의 주된 주력 사업이, 모빌리티와 바이오 사업이 저희 연합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양성은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 연합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놓고 복귀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최선보다는 어쨌건 우리 초광역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쫓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기업 맞춤형인데 기업은 없고, 또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사업도 그래요.

너무 비슷하고 해서 초광역을 쫓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주면 10억 다 쓸 수 있고 100억 드리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 저희가 굳이 해야 될까요?

어쨌든 처음인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초광역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검토를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해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선광 김현미 유인호 조성태

○청가 위원(2인)

구형서 신영호 안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하준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 광 역 자 치 과 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